

대불산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·감독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10.20.(화) 경향신문, “안전 실종된 죽음의 사업장 ‘대불산단’ 2년 새 집으로 못 돌아간 노동자 15명”

2. 설명 내용

- '25.1월부터 '26.9월까지 대불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는 총 11명(외국인 4명 포함)이며,
 - 사망한 노동자 11명 중 6명은 조선업에서(육상 및 수상운수업 포함), 3명은 건설업(모두 지붕 작업 중 추락)에서 발생함
- 그간 광주노동청과 목포지청은 대불산단 주요 기업에 대한 전담관리 및 중소 현장에 대한 점검·감독 등을 실시하였으며,
 - 지난 9월 조선업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재차 발생함을 고려하여, 향후 관리·감독을 강화할 예정
- (조선업) 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패트rolled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, 안전관리 컨설팅 및 안전시설장비 재정지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
 - 대기업 등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개선계획 수립을 지도하고 (~'26), 취약사업장에 대한 감독 추진
 - 아울러, 대불산업단지공단과 협력하여 내년부터 공동안전관리자* 채용을 확대하여(現 1명),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지원할 예정

* (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) 사업주단체 등이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도록 정부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

□ (건설업) 대불산업단지공단과 노후 공장 지붕 현황 등 정보 공유 및 지붕공사 사전 승인제를 실시하고 지방정부와의 합동점검도 추진

* (지붕공사 사전 승인제) 시공업체 선정 시 작업계획서 공단 제출, 검토·승인 후 착공
→ 공단 전남본부 특화 사업

○ 추락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*과 함께 대불산업단지공단과 캠페인 전개

* (추락 예방시설 설치 지원) 공사규모 50억 미만 지붕·철골 공사에 지붕 영구형 안전 시스템, 추락방호망, 채광창 덮개 등 추락사고 예방 안전시설 최대 90%까지 지원

□ (외국인)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대상 집중 점검과 함께, 외국인 안전 리더를 통한 안전수칙 전달 및 사고사례 전파 지속

□ 또한, 노동부는 대불산단 지역의 노·사, 지역단체 등과 함께 안전보건 거버넌스를 통한 소통으로 현장에서 산재예방이 실천되도록 노력하겠음

담당 부서	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	책임자	과 장	박상원 (044-202-8901)
		담당자	사무관	강승훈 (044-202-8914)
담당 부서	안전보건감독국 건설산재예방감독과	책임자	과 장	황효정 (044-202-8835)
		담당자	사무관	김성경 (044-202-8937)
담당 부서	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	책임자	과 장	박윤경 (044-202-8850)
		담당자	사무관	김재규 (044-202-8851)
담당 부서	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	책임자	과 장	김준호 (044-202-8820)
		담당자	사무관	김윤진 (044-202-8930)
담당 부서	산업안전예방정책관 안전보건격차개선과	책임자	과 장	김정탁 (044-202-8831)
		담당자	사무관	안서종 (044-202-8889)
담당 부서	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 로드맵이행총괄팀	책임자	과 장	하지영 (044-202-8864)
		담당자	사무관	서도원 (044-202-8866)
담당 부서	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산재예방감독과	책임자	과 장	최병식 (061-280-0171)
		담당자	근로감독관	김미란 (061-280-0168)